

제 13 호

연중 제 8 주일
(오순주일)

1973. 2. 25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심 갑

【강론】



교회의 현대화

범 석 규 신부

오늘 복음성서의 마지막 구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마르코 2장 22절)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교회는 지난 시대의 유물이나 사물(死物)이 아니고 현대 세계안에 생동하는 교회임을 주장하며 현대세계를 그리스도안에 재건해야 한다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교회는 현세에 대하여 부정적(否定的)이며 소극적(消極的)인 태도였으나 이제부터는 보다 긍정적(肯定的)이며 보다 적극적(積極的)인 태도로 전환하며 현세계를 그 내부에서 순화하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자태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교회의 태도는 내세 즉 천국이나 바라며 이 세상의 일에는 상관치 않고 피하는 태도였으나 이제는 교회도 이 세계를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재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계를 그리스도안에 다시 세우려는 교회는 그 세계의 구성요원인 평신도의 위치를 재인식하고 초대 교회때 처럼 성직자와 평신자가 혼연 일치하여 하나인 교회를 건설하므로써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현대화는 교회가 이 세계를 위하여 박물관의 골동품과 같은 신세를 면하고 싱싱한 힘, 새로운 조직으로 현대 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늘의 세계의 발전과 더불어 변모하는 현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현대화된 교회이며, 하느님의 창조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임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때문에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마르코 2장 22절)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주님은 내 버팀이 되시고, 넓으나 넓은 들로 나를 끌어내시고,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해 주셨나이 다.

□ 독서 (고린토 후서 3:1-6, 성서 p.407)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써보내신 소개장이다

□ 총계송 동녘이 저녁에서 사이가 먼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멀리하여 주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어여뵈 여기듯이 주는 그 섬기는 자들을 어여뵈 여기시나니.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뜻을 정하시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모든 조물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알렐루야.

□ 복음 (말르코 2:18-22, 성서 p.79) 신랑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도 굳은지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당신의 과업을 즐기 수행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저희 가족이나 친지, 또는 몇사람이 안되는 회원의 모임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

3. 주여, 저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장 귀중하고 거룩한 것으로 깨닫고 길이 보전하게 하소서 ◎

■ 맺음 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이의 목자시요 임금이신 천주여, 친히 주의 일꾼 아우구스띠노를 성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 보시어, 그로 하여금 말과 모범으로 신도들을 보살피다가, 마침내 맡겨진 양무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1] 영성체송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26(월)독서(로마서 3:21-26, 성서 p.343) 복음(마르코 10:17-27, 성서 p.100)

27(화)독서(로마서 3:27-31, 성서 p.343) 복음(마르코 10:28-31, 성서 p.101)

28(수)독서(로마서 4:1-12, 성서 p.344) 복음(마르코 10:32-45, 성서 p.101)

1(목)독서(로마서 4:13-25, 성서 p.345) 복음(마르코 10:46-52, 성서 p.102)

2(금)독서(로마서 5:1-11, 성서 p.345) 복음(마르코 11:11-26, 성서 p.103)

3(토)독서(로마서 5:12-21, 성서 p.346) 복음(마르코 11:27-33, 성서 p.105)

□ 논 단 □



우 리 의 반 성

최 일 응

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저들이 무지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신 십자가를 한갖 교회종가의 비석인양 생각할 때는 없었는지? 빛과 소금을 말하면서 그 광채와 맛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었는지 반성하여 보아야 하겠다.

지상의 왕을 경멸하고 하늘의 왕을 가르치셨던 2천년전의 예수님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생각하여 보자. 더구나 자연 앞에서 무력했던 고대인처럼 과학 앞에서 노예가 된 현대인, 따라서 가난과 고통과 온갖 정신적인 위기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구제하여 주는 것은 오직 물질(금전)이라는 물질주의자, 산상수훈과 모세의 십계명을 희미한 과거로 돌려 버리는 신앙인들, 신성한 이유를 빙자하여 싸움을 붙이고 박수를 치는 그런 크리스찬들, 교회를 하나의 생활수단화 하는 광신자들, 남의 죄를 방관하면서 자기 죄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이기적인 신앙인들. 이 모든 현대 신앙인들의 행위가 신과 교회를 죽이고 인간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지?

「크리스찬 때문에 신은 죽었다」한 니이체의 소리가 부질 없는 한 철학자의 잠꼬대로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과 인간과의 합리화 시켰고 인간을 신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도록 신의 세계를 이 지상에 전설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인간이 되도록 성서까지 마련하여 주셨다. 또한 진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다. 이 위대한 사업과 말씀을 망각해서는 안되겠다. 신은 결코 사탄의 놀이터로 이 지상을 주지는 않겠기에 진리에 충실하여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죄악에 항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죄악에 항거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충실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는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소동과 고모라의 비극을 재연시키지 않기 위하여, 또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하여, 2천년전의 갈릴리 바다의 어부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악에 항거하며 빛과 소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죄없는 사람이 죄있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고 죽었다는 사실을 강건너 사건으로 알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남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단순히 십자가가 교회 종가의 상징물로 생각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이다 (전라고등학교 교사)

□ 양지쪽 □



6 분 15 초

가끔 연탄하신 선생님의 푸념을 듣게 된다. 긴 시간은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돋보기를 써야 책을 볼 수 있음은 물론, 웬만큼 들여다 보면 그나마 글자가 어긋나서 큰 어긋나서 골치마져 멍하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듣자 보면 늙으나 젊으나 이구동성으로 나이 탓이라고 맞장구를 친다. 사람이 늙어지면 육체적인 피로가 빨리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정신적으로도 더욱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시간의 흐름이 무엇인지, 이런 유행어가 사도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대개 골치아픈 일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개 흩어지듯이 사라진대서 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말이 멀리 가버린 연인에게 대한 감정도, 심지어는 죽은 외아들에 대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던 슬픔마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희박해 진대서 하는 말이겠다. 하기가 잊을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옛그제 시의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교환 아가씨 하는 말이 “6분 15초입니다. 세 통화 감사합니다.”는 것이다. 15초 때문에 한 통화가 더 계산된 것이다. 하기가 15초라면 100m를 달리는 육상 선수에게는 140~50m를 뛰었을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화방을 사람을 바꾸는데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했을 시간이 우물 우물하다가 그만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15초는 그리 별것도 아닌성 싶은데 말이다.

옛 부터 사람들은 시간의 고귀함을 자주 말해왔다.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게 보내지 말라 (一寸光陰不可輕)”든가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또는 “시간은 위대한 교사다. (Time is the great teacher)” 라는 말들이 그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의 시간을 헛되이 빼앗아 버림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자기 시간까지도 허송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오늘처럼 무섭게 변천하는 시대에는 더욱 시간을 잘 써야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 오는 3월 7일은 <재의 수요일>이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시간이다.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에서

중앙성당 옆 (☎ 7398)

※ 개업안내 ※

중앙 가방 센터

<여행구 핸드백 학생가방> 도산매

교우에게 특별 할인

중앙성당 상가 노벨제과 옆

방벨라도 (용석)

최 씨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 6691 교환85번)

* 대학의 광장 *

● 잔디밭 ●

여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김 병 주

여기 영광 옥의 고통에 몸부림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뚜렷한 배움도 없으며 그렇다고 지어먹을 논밭도 없는 고향을 등지고 행여 일하면 살수는 있을거라는 생각에 구해본 직장이 한달 고된 작업의 댓가에는 너무도 보잘것 없는 고작 6, 7천원의 봉급으로는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기는 커녕 아예 망각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J.O.C회원 「사무엘」은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관찰하여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불어 넣어 주기 위한 방법을 회합에 부쳤습니다.

투사는 이를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모으고 우선 자기 영혼을 알고 돌볼 수 있게 하며 삶에 필요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찾도록 하여 노동조합 조직의 결실을 얻기에 이르렀는데,

아빨싸!

고용주의 황금에 어두운 눈은 이를 그냥 무시 않고 있는 것을.....



힘이 미약한 근로자들 가운데 30여명은 무단 해고를 당했고 밀린 봉급이나 퇴직 수당은 계속 기만을 당하고 있고, J.O.C 3명의 회원은 어이없게도 영하의 날씨에 수감되어 결국 무죄를 판명 받았으나, 무단 해직자들의 생계와 보상의 책임은 어디로 돌려야 할 것인지요.

이 비참한사회 뒷면의 현실 앞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일 수 없으며 다같은 천주의 자녀로써, 버림받을 수 없는 다 같은 자격으로 태어난 우리 형제들의 일로써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에 우리 전체 J.O.C의 사명만이 아닌 그리스도 사업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전 교구의 교형 자매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이 가혹한 노동 청년들의 사랑에 찬 투쟁에 한 분 한 분의 정성어린 기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실 때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우리 전체 J.O.C의 용기와 힘으로 지난 「강화도 섬유 노동조합」기건의 매듭처럼 진정한 다른 모든 노동사회의 정의는 사필코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바입니다.

(JOC 전주 교구 연합회 공보부장)

주 보 보 내 기 독 지 가 모 집 (연 락 처 ③ 3 9 9 8)

의료협동조합 가입하여 건강하고 밝은 내일 약속 받자



이사장 김재덕 주교
조합원 262명

매월 400원씩의 회비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무료 혜택은 물론 치료비의 7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의 문의 연락처 ③3201 ③3498

전북 의료 협동 조합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26(월) 교리 교실~ 박 진량 신부 지도
- 27(화) 젊은이의 광장
- 25(일)-28(수) 대학생 연합회 지도자 훈련

*젊은이의 광장 (매주화요일)

- 성경은 참으로 기쁜 소식인가?
(오후 8:00-8:40 유장훈 신부 지도)
- 진정한 노래와 즐거운 게임으로 젊음을 보람차게
(오후 8:50-9:30 레크레이션 교실)

축 발전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고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②6094

축 발전

동남 샵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②5504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주교님 성성식 3월 22일(목)로 예정된 성성식에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행사 주관-교구 사무협의회)

꾸르실료 교구 울뜨레아(3월 1일 9시반, 가톨릭센터)

소식

(중강)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중순

1. 중등부 학생회 임시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심 부녀회 월례회 (3월 2일 어머니 미사 후)
3.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주일 학교 신입생 등록 (이달 말까지, 사무실)
5. 주일학교 주일금 봉헌 (3월부터 봉투제)
6.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 공식미사 후)

☆ 축 결 혼 ☆

2월 26일 오후 1시
신랑 박노주 군과 신랑 황정숙(테레사) 양

3월 27일 오후 2시

신랑 송호현(아오스딩)군과 신부 최혜자(셀뜨루다)양

□ 지난주일 봉헌금 31,010원 감사합니다.

(노출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사도회 월례회 (광주 피정의 집에서)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3. 학생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개학 (3월 3일 부터)
5. 분당 신축을 위한 운동 신축 위원회 위원이신 구역장과 반장님들의 책임 맡으신 활동, 더욱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참여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1,915원

학생회 봉헌금 1,06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8082)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학생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 ① 정·부회장 선출 ② 사업보고
2. 학생 신상 카드 작성 학생들의 빠짐없는 참여바람 (카드 배부-학생회장)
3.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의실)
4.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참여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4,342원

애령회 기금 (성미 3말 성금 610원)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덕진 누계 50,000원 복자 누계 1,200,000원

- 다가동 오신부(10만원), 박흥기, 율화복, 이상순, 전종근 (각5만원), 김복순(3만원), 김순희, 정인순, (각2만5천원), 박배경(2만원), 권성권, 김방웅, 김정래, 신영애, 유복성, 이경호, 이정우(각1만원)김용녀, 소진수, 오주자(각5천원)
- 중앙동 이복주, 홍명신(각5천원), 신희한(2만 5천원), 김분정, 봉영숙, 하엘리사벳(각1만원)
- 진북동 유춘자(5만원), 서용현(2만5천원) 문영희(1만원) 고사동 정옥규(5만원), 이순애(2만5천원), 최영대(2만원) 이순화, 최소향(각1만원) 김화자(5만원)
- 태평동 라홍덕, 임모니카, 최소자(각2만5천원) .이순우(1만원), 김복순(5천원), 안시아(2천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반)
2. 지성인 교리반 개설 3월 부터 분당 예비신자와 지성인을 위한 교리를 분당 신부님이 직접 지도하오니 부활절 영세를 앞두고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4,077원

지난 주간 성미 3말 2되(누계 95말 9되 5홉)

성금 110원(누계3,69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교리 (매주 공식미사 전)
3. 주일학교 졸업식 및 시상식 (오늘 공식미사 후)
4. 다함께 노래 부르기 ① 때 : 3월 첫째 목요일 부터 매주 목요일 ② 주최 : 교리 교사회

□ 지난 주일 봉헌금 8,065원

지난 주간 교무금 15,3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방직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복자성당)
2. 수녀님 이등 (윤수녀님 감사합니다.)
가시는 분...윤 세레피아 수녀
오시는 분...김 세시리아 수녀
3. 예비자 교리 ① 매주일 공식미사 후...수녀님 지도 ② 매주일 저녁미사 후...신부님 지도
4.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적극 협조합니다

사도회회원, 각구역장, 반장님들의 수고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일 봉헌금 27,389원

지난주간 성미 1말, 성금 450원, 감사합니다.

원 아 모 집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에게 밝고 건강한 교육을 시킵시다. (원서마감 2월28일, 전화문의 ② 8347)

-성심 유치원-

- 효자동 박귀선(2만원) 완산동 장덕성(1만원), 김모니카 박순주(각5천원)허안나(3천원) 서학동 누계 197,0000 원 육낙철, 정시진(각5만원), 김재열(3만원), 한형수(2만원), 김한기(1만5천원), 강남준, 박기훈, 손숙옥(각 1만원), 강순옥(2천원) 전동 누계 1,690,000 전동 성모병원 직원 알동(30만원), 고명순(5만원), 은재희(2만5천원) 풍남동 이종옥(5만원) 중앙동 김미희, 전순환(각5만원) 동안산 범창규, 이병식(각5만원) 서안산 이현재(5만원), 기타 (10만원) 교동1가 정만성(2만5천원) 중앙 누계 2,258,500원 경원동 차경순(1만원), 김희정(5천원) 진북2동 이상용(5만원), 강정후, 장남옥 (각5천원) 진북1동 송철(1만원), 이인순(5천원) 태평동 김용석, 안영근(각5천원) 인후동 황진남(1만원) 서노2구 이희창(2만원)